



기고 차균희 순천시선관위 홍보계장

깨끗한 선거로 조합의 밝은 미래 피어난다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2월 28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13일간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옷깃소품, 전화,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배부·지지호소의 방법이 있으며, 조합장선거는 대통령선거 등 공식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등록 제도가 없다. 선거인인 조합원들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의 후보자의 공약

사항 등의 정보를 자세히 잘 살펴보고 어느 후보자가 우리 지역 조합의 대표자로 최적의 적임자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조합장선거는 그 특성상 공식선거와 달리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후보자 대부분은 조합원들과 가까운 친인척이나 이웃, 학교 동문관계인 경우가 많고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연고지를 기준으로 삼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조합장선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농어

촌 공동체의 핵심인 농협장 수협장, 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일은 조합원의 실익 증진뿐만 아니라 공식선거에 영향이 매우 클 것이며, 우리 국민들이 지난 공식선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대표자를 선택하는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국민 스스로 체득을 했다.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우리 지역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원을 위하여 최선의 열과 성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한 표 한 표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

앞장서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농어촌 공동체의 핵심인 협동조합의 리더를 선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역의 가장 기초단위 선거가 된 조합장선거부터 기반을 튼튼히 하여야 잘 사는 조합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를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공식선거나 조합장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면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며, 후보자는 조합 발전과 조합원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유권자들도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참된 일꾼을 선택해야 한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되고, 경제·금융 등에서 수익을 증대하여 변화하는 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 시간을 잘 지켜 소중한 투표권을 꼭 행사하시기 바란다.

社 說

공무상 치료비 부담 줄여야

앞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방관, 경찰관 등 현장근무 공무원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니 기대가 크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이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했다. 특수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원되는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요양급여비용이다. 그간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더라도 일부 약제나 치료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우선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적인 처치·수술법이 된 항목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포함했다. 허리 부상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

술' 치료비와 만성요통 치료술인 '고주파 열치료' 비용 등을 지원한다. HCV항체(C형간염바이러스), HIV항체, 전류인지역치, 동작분석 역동적근전도 등에 대한 검사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에 사용된 약제·치료재료 등의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화상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비를 추가로 지원해준다. 이 밖에 중증외상을 입은 공무원이 권역의상센터에 입원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진료비 등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이 각 분야에 현실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비상구, 안전을 위해 신고하세요

비상구란 건물이나 차량에 사고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대피용으로 설치된 출구를 말하는데, 시대가 갈수록 업소가 대형화·밀집화되고 내부 구조는 복잡해지며 실내 장식물 등이 많아지는 등 현대사회에서 건물 내부의 비상구는 매우 중요하다. 비상구의 중요성은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스포츠타 센터 화재를 보면 알 수 있다. 희생자 29명 중 여성 20명이 숨진 2층 사무실에 위치해 있던 비상구는 목욕바구니, 선반 등으로 막혀져 있었다. 만약 비상구가 제 역할을 다하였다면 희생자들은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재난 상황 시 비상구를 이용한 탈출을 방해하는 피난·방화시설 훼손 폐쇄행위, 피난·방화시설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변경 행위 등은 현장 점검으로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지만, 한정된 소방인력과 점검장비로 인해 모든 다중이용

업소를 점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 제고 비상구 폐쇄 등의 근절,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방지, 안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중이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포상금 지급심의회' 결정에 따라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1건당 5만 원)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 모두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 비상구의 위치를 파악해 비상상황 시 신속한 탈출을 할 수 있도록 탈출 방법을 생각해 놓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김형준 / 곡성119안전센터 소방사

'해빙기' 조그만 관심이 큰 사고예방

겨울이 지나고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경칩이 다가왔다. 이에 몸도 나른해져 각종 안전사고가 열려되는 시기로, 겨울내 미뤄왔던 각종 보수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사고 위험도 높은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생활 주변에 안전사고 위험요인은 없는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사장 부근에서는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지하굴착 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절개지·낙석 위험지역에서는 절개지, 암반 등에서 절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낙석방지책·망 등의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훼손 방지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은 설치되었는지를, 축대·옹벽에서는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

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건축물 주변 옹벽·축대는 지반침하나 균열 등으로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등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얼었던 땅이 녹아 건축물의 지반이 내려앉을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기배선이 손상으로 인한 누전으로 건물벽과 철골 등을 통해 수도꼭지나 세탁기 등 가전기기를 사용할 때 감전사고 위험이 높아질므로 이를 막기 위해 전기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해 점검을 받도록 하자. 이렇듯 겨울철 한파의 영향으로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축대, 대형공사장, 건축물 등에서 균열 및 붕괴우려 등 위험요인의 발생을 사전에 발견·조치하는 등 시민 개개인 모두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봄철 해빙기를 안전하게 보내기를 바라며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한 긴급차 출동에 '소방차 길 터주기'의 실천을 당부 드린다. 윤석경 / 영암 삼호119안전 소방장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故事成語

樂殊貴賤

노래 다름 귀할 천할
악수 귀천

樂殊貴賤

▷ 뜻: 풍류(風流)는 귀천(貴賤)이 다르니, 천자는 팔일무(八佾舞), 제후(諸侯)는 육일무(六佾舞), 사대부(士大夫)는 사일무(四佾舞), 서민은 이일무(二佾舞)임.

湖南新聞 (062) 222-5547 (062) 222-5548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010-5330-553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겸 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민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유통망형 및 그 실행요건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곳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지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